

유다서 묵상 10  
(11/7/2020, 토)

찬양: 500(258)(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유다서 1:22-23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단에 영향을 받고 미혹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유다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1) 의심하는 자들. 22 절 -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구별하다’, ‘분간(별)하다’, ‘시험하다’, ‘판결을 내리다’, 혹은 ‘의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단어를 통하여 당시 성도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의 미혹을 받아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단에 전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미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 신앙 체계에 의문을 품고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는 ‘불쌍히 여기다’, ‘돕다’, 혹은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지는 동정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롬 9:15 -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출 33:19 인용). 딤후 1:13 -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유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과 갈등을 경험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내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긍휼이 여기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이 여기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알려 주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모습이 함께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돕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2)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할 자들. 23 절 -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며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단사상에 깊이 연루되어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불에서 끌어내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불의 심판 속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유다는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을 급히 꺼내어 살려야 하듯이, 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급히 구해 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면서 선포되었습니

다. 회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 역시 압박한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미 넓은 의미의 종말의 시기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기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가올 종말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과 함께, 믿음이 잘못되고 왜곡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은 시간을 다투는 일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마치 불에서 구해내듯이 구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3) 타락에 젖은 사람들. 23 절 - ...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가 언급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옷”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속옷을 언급한 이유는 성적 타락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미워하되”로 번역된 표현의 원어는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타락에 빠진 사람들의 속옷까지도 혐오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혐오하고, 아울러 그러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의 문제는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계했지만, 그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중의 하나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역시 사람을 긍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당시 이단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이단에 빠져드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에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우들이 이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나 자신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을 비롯한 영적인 문제는 일종의 영적 전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아울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듯이 긴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혼을 구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경계한답시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긍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3. 혼돈 속의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갱신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